# 교육금고 지정 ·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금고 선정의 공정성 · 객관성 강화 ·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 지역재투자 실적 평가항목 신설 등의 내용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일 교육금고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지역재투자 실적 평가항목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라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와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 총점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해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규칙안에서 두드러진 사항은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세부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규칙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면 차기 금고지정 절차에 들어가 오는 10월쯤 교육금고 운영을 맡을 금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혁신교육 뒷받침 토대 마련'

### 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 "국가교육위설치법 국회통과 환영"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 출마예정자는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교육위원회 설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일 이 출마예정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적 교육정책과 혁신교육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이번에 통과된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실질적인 힘을 가진 의결기구"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이 법의 통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핀란드나 영국처럼 특정 정부의 집행부가 아닌 민관학이 협치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갖게 됐다"며 "1995년 5월31일 교육개혁 조치를 전후해 제시된 과제가 26년 만에 실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 전국 13개 광역여성새일센터 연대 회의

(재)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윤애 센터장)는 2일 배재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에서 '전국 광역여성새일센터 연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역새일센터는2010년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기관(8개소)에서 시작돼 현재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광역단위 교류는 2016년 호남권역(전북·전남), 2017년 영남권역(전북·전남·경북·경남)으로 확대했으며, 올해 최초 13개 광역센터가 모두 참석한 연대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광역센터 운영현황 공유 ▲광역센터 기능 강화 방안 의견수렴 ▲중장기·지속 발전계획 및 방향 정립 ▲광역센터 평가지표개발 의견수렴 등 광역센터의 지역통합·관할하는 실질적 거점 역할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며, 센터 간 적극적인 교류 협력체계를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공동 실천 결의서'를 통해 광역단위 시범사업 발굴 및 여성 취업 지원 정책 방향 공유·제안 등 광역단위 협의 사항과 사업 운영에 관해 적극 협조해 새일센터 경쟁력 향상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실천을 낭독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광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이수립 과장, 중앙새일지원센터 양승주 센터장이 참석해 중앙.광역.지역센터 간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고히 하고, 센터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현장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유망 진출 구인처 발굴,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보급,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지원기관과 연계,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문화 확산 및 일자리 사업 활성화 등을 지속적인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607, 3719)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 대입 지원단-진학부장진학지도 연수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3일 원광대학교에서 전북 대입진학지도 지원단 54명, 진학부장 및 3학년부장 61명 등 총 115명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대입 수시지원 전략 마련을 위한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및 전형의 변화에 따른 진학지도 방안 안내를 통해 도내 고등학교 진학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전북대입진학지도지원단의 진학지도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입지원단 연수, 진학부장 연수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곡고 문희태 교사(대교협 대표강사)의 '2022학년도 수시 대입 지원전략 안내-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홍정기(한국에너지공대 입학팀)의 '한국에너지공대 2022 대입전형 안내' ▲신성철(한국전문대교협진학지원관)의 '2022 전문대학 입시 정보 안내' ▲최성민 교사(정주고, 자료개발팀장)·박상용 교사(영생고 학생부종합전형팀장)의 '2022학년도 수시 대입 지원전략 안내 전북지역 대학, 지역거점국립대' ▲팀별 협의회 등이 이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진학지도 교사들에게 양질의 수시 대입 진학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진학지도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단장을 맡은 서립고 장진호 교사를 비롯해 총 61명의 진학 전문 교사로 구성, 지난 2월 발대식을 가졌다.

연수 및 현장지원팀, 입시분석 및 자료개발팀, 학생부종합전형연구팀, 수능전형연구팀, 대입진로진학상담팀, 대외협력팀으로 나눠 대입진학지도 정보 공유 및 전략 수립의 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대학 주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앞장

### 사회적경제대학협의회 협약…31개 회원대학 산학협력추진 키로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은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학 주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대학협의회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31개 회원 대학은 전문 인재양성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학 간 수평적 연대조직인 산학협력 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증진 활동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 등 더 좋은 공동체 실현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 이어 전북대 등 산학협력 협동조합을 선도하는 3개 대학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회장교인 전북대는 지역 농민과 교수들이 결성한 글로벌푸드컬쳐협동조합 사례를,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교수들이 결성한 CKU콘텐츠협동조합 사례(가톨릭관동대), 결혼이주여성들과 경상북도 관계자, 대학교수들이 결성한 글로벌레이디협동조합 사례(대구대)를 각각 소개했다.

이와 함께 31개 회원 대학들은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도 참가, 각 대학별로 수행해 온 사회적경제 우수활동의 성과 확산 배너를 전시했다.

고영호 단장은 "대학이 연대와 협력, 공동체와의 나눔이라는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다면 대학의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여러 회원대학 및 사회적 기대감에 부응해 더 좋은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만전'

### '2021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계획' 각급 학교에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 시군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 안전교육이 주요 교육정책으로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 교육과 능동적 예방활동으로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요 추진과제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개인능력 배양 ▲물놀이안전사고 예방교육 내실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물놀이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구체적으로 초등 전학년 대상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운영하고, 정규 교육과정 내에 생존기능·수영기능·구조기능을 포함한 실기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것을 권장했다.

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및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안전교육 내실화를 꾀한다.

특히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여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학부모 교육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계곡·하천·해수욕장 등 물놀이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지자체·소방서(센터) 등과 협력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휴가철 물놀이 지역에 대한 안전 캠페인도 전개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물놀이 안전수칙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 안내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관계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